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논의

군산시·군산대 법학연구소, 새만금지역 성공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 포럼 개최

지난 8일 군산시·군산대학교 법학 연구소는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시 부시장, 군산시민을 비롯해 법학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에 관한 고찰(영남대 이부하 교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서울대 이진수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다.

발제자들은 국내 관할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준을 검토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관할구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부하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에 결

정하는 게 원칙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6가지 기준 △공유수면 매립목적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리적 조건(교통 및 접근성) △행정관한의 행사내용 △사무처리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관한의 행사 연혁을 설명했다.

끝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편의 등을 근거로 든 이 교수는 현재 중분위에 상정된 2건의 안전(동서도로, 신항만방파제)으로 군산시의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이진수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새만금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군산대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상경 원장, 한국의

대 전학선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웅희 판사, 강원대 윤수정 교수, 군산대 홍운선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관할 결정 방식이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논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법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 포럼을 계속 주최하며 관할권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총력전

국회 찾아 예결위 소속 의원·전북지역 국회의원 등 면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청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하여 군산시 주요 현안 사업 및 정부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 시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박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을 면담하여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현재 군산시는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당면한 현안 산업이 산적해있다. 강 시장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특히 강 시장은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설명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먼저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은 국가 어항으로 승격되었음에도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 어항 기본시설이 부족



하여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밸류 체인 확립 및 산업생태계 완성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환경보호 및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과 추가 기업 유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유치 급증으로 폐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새만금국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폐수 처리를 위한 제2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를 방문한 강임준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군산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방안을 찾아 국회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시의회·생활개선회, 김장 나눔 행사

총 500포기 김치 담가... 소외계층·어려운 이웃에 전달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와 생활개선회(회장 박정지)는 지난 8일,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추진한 뜻깊은 행사로 익산시의회와 생활개선회의 협력 아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총 500포기 배추를 준비해 힘을 합쳐 김치를 담갔으며, 김치는 관내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시의회와 생활개선회가 함께 추진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힘을 모

아 나눔을 실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지 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익산시의회와 함께 뜻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장 준비는 '익산마을전자상거래'에서

절임배추 20kg 3만6900원에 판매... 지정 날짜 무료 배송

익산시가 김장철을 맞아 '마을전자상거래 김장 기획전'을 진행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익산몰(www.iksanmall.com)서 절임배추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김장 재료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익산 절임배추 20kg을 3만 6,900원에 판매하며, 익산몰에서 구매 시 20% 할인(1인 1회, 최대 2만 원)과 구매액의 5% 적립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또한 마늘, 견고추, 양파 등 김장에 필요한 농산물도 판매해 익산몰에서 간편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다.

절임배추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배송으로 각 가정의 김장 시기에 맞춰



주 3회(수·금·토) 지정날짜에 받아 볼 수 있다. 배송지가 익산인 경우 오전 6시까지 결제가 완료된 김장재료 등 일부 품목은 당일 무료 신속하게 배송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전북연구원, 정책 간담회 개최

익산시와 전북연구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김보국 연구본부장, 김수는 책임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현안사업은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공공형 방과후 러닝센터 △금강하류 침수예방 대책 강구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 동향, 대응계획을 비롯해 쟁점사항을 제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관 신규운영 추진

군산시는 오흥동 소재 고령자복지주택 준공에 따른 노인복지관 신설로 11월 중 노인복지관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고령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은 군산시가 관리 운영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노인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는 완료됐고, 11월 중 기존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법인 3곳을 대상으로 위탁공고를 진행하며, 이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법인이 선정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겨울 한파 대비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익산시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나섰다.

익산시는 가스비,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어려움을 예상되는 취약계층 3,406세대에 3억 9,98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 원 △2인 세대 15만 원 △3인 세대 20만 원 △4인 이상 세대 25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됐다.

선불카드 배부 대상은 난방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1,414세대이며 계좌입금 대상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1,992세대다.

/익산=이재춘 기자